

# 도 - 혁신도시 이전기관 상생 도모

### 상생협의회 개최... 6개 기관 복분자 98상자 신청 등 구매협조·지역인재 채용 등 약속

전북 혁신도시 상생협의회가 23일 개최됐다. 상생협의회는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 12개와 전북도, 도교육청, 전주시 완주군 등이 참여해 이전기관들의 초기 정착을 위한 상호협조 및 정보공유와 지역발전을 통한 상생을 도모해오고 있다.

이번 상생협의회에서는 최근 도내 복분자가 관로 부족, 대체 품목 증가, 가격 하락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복분자 생산농가를 돕기 위한 각 기관별 복분자 구매협조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이미 국토정보공사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6개 기관에서는 복분자 생산 농가들을 위해 57명(총 98상자(생과 68, 파우치 30))의 복분자를 전북도에 구매 신청했다.

도와 이전기관은 그간 상생협의회를 통해 상호 발전을 위한 협조사항 논의,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시책 정보공유 및 이전기관 초기정착을 위한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도는 이전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도내 중소기업 제품 및 농산물 우선 구매, 생태관광 활성화, 새마을마을사업에 협조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이전기관들은 각 이전기관의 신규채용과 관련해 채용 직렬별 지원자격과 관련학과 또는 개설 희망



**최저임금 1만원 목소리 답아**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공공운수 서경지부 등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민주노총, 대학노조 등 최저임금 1만원 서명지를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공공운수 서경지부 등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민주노총, 대학노조 등 최저임금 1만원 서명지를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학과를 파악 중에 있다. 도는 향후 관련자료를 고등학교·대학에 통보하고 각 학교에 희망학과 개설 등 인재양성을 협조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이전기관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도내 지역인재 채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친목도모, 소통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입주기관

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전북도와 이전기관 간의 상호협력, 상생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 장마철 감전사고 주의하세요

### 34%가 6-8월 발생... 안전수칙 지켜야

국민안전처는 23일 여름 장마철에 습기가 높고 신체 노출부위가 많아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주의의를 당부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2~2014년) 발생한 감전사고는 총 1745건으로 이중 105명이 사망했다.

월별로는 8월에 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7월이 2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장마철에 사고가 크게 증가해 6~8월 34%가 발생했다.

충전부에 직접 접촉해 발생한 사고가 59%로 가장 많았고, 이크(전선로 또는 전기기기에서 발생되는 아크)에 의해 2차적으로 전기화상에 의한 감전과 누전에 의한 감전이 각각 28%, 11%를 차지했

다. 여름 장마철에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물기가 많고 습도가 높아 쉽게 누전이 되는 등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며, 땀으로 인한 인체 저항 감소와 짧은 옷 등 간편한 복장으로 인한 신체의 노출부위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가 오는 날에는 가로등이나 신호 등 뿐만 아니라 입간판, 에어컨 실외기 등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사업장에서는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기기 정비 시 전원 차단 등 감전예방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수 기자

## 협업포인트 사용실적 부서평가 반영

### 행정부, 내달부터

행정자치부가 협업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협업포인트 사용실적을 다음달부터 부서평가에 반영한다.

협업포인트 제도는 공무원이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다른 부서 공무원과 업무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거나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을 한 경우 포인트를 주고받는 제도다.

직업들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칸막이 없이 소통하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부처·부서 이기주의를 없애고 협업하는 조직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협업포인트 제도의 취지다.

일부 민간 기업들은 칭찬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다양한 방법의 협업 포

인트 제도를 운영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협업포인트는 직원 1인당 매월 200포인트씩 배정받아 협업 상대부서에 1회 10포인트씩 감사메시지와 함께 보낼 수 있다.

다른 부서 직원은 물론 다른 기관 공무원에게도 줄 수 있으나 같은 부서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다. 동일인도에 대해서는 월 2회까지만 가능 하다.

평가대상은 부서원들이 사용한 협업포인트 사용실적으로 하고, 평가결과는 부서장파 부서원 모두의 성과에 반영된다. 연간 실적을 종합해 협업을 잘하는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정영수 기자

## 도, 폭염대책비 2억2천만원 배정

전북도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폭염대책비를 각 시·군에 배정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폭염대책비 2억 2000만원을 도내 각 시·군에 긴급 배정했다.

이번에 배정된 폭염대책비는 폭염대비 홍보물 제작(포스터·리플릿)과 무더위쉼터에서 쿨매트와 아이스수건 등을 구입하는 데 쓰여진다.

이외에 도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폭염취약계층 보호에 나서고, 폭염피해 예방캠페인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폭염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 줄이기 위해 농업기술원과 수산기술연구소에 현장기술지원단을 가동하고, 폭염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한편 지난해 74명의 은열질환자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정영수 기자

## 한·EU FTA 5년 유럽차 수입 늘고 국산차 수출 감소

### 지난해 24만대 수입 중 80% 유럽차... EU 수출 2년 연속 적자 기록

오는 7월 5년이 되는 한·EU 자유 무역협정(FTA) 발효 결과 자동차 분야는 무역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차가 관세 효과에 힘입어 고공 성장해온 반면 국산차의 대 EU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배기량 1500cc 미만 소형차 관세율은 현행 1.6%에서 전면 철폐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와 EU 자동차 교역 현황에서 EU산 자동차 수입 규모는 매년 두자리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FTA 발효 첫해인 2011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 늘어난 데 이어

2012년 18.8%, 2013년 17%, 2014년 53.4%, 2015년 25.7%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1년 31억8800만달러였던 연간 수입액은 지난해 85억4800만 달러까지 커졌다.

유럽차는 독일차의 강세로 점유율도 빠르게 늘리고 있다. 2010년 9만대 규모였던 국내 수입차 시장은 지난해 두배가 넘는 24만대 규모로 성장했고, 이 중 유럽차 비중이 80%를 차지했다. 폭스바겐,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등 독일차가 68.9%를 차지한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의 EU 수출은 지난해 51억2700만달러로, FTA 발효 해인 2011년 57억8400만달러에서 오히려 줄었다.

2011년 전년 대비 68% 증가했던 수

출은 다음 해인 2012년 9.5% 감소했다가 2013년 11.2%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2014~201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2.2%, 10%) 하면서 2년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1~5월) 들어서는 한국산 자동차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고, EU산 자동차 수입은 5.7% 감소했다.

유럽차는 올해 '디젤게이트' 때문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유럽차에 대한 선호도에 힘입어 무역 적자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유럽차와 FTA 이후 소비자 선호에 혜택을 많이 봤다"며 "올해도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 전북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출범

전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른바 '건강 전문가'들이 뿔뿔 뿜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생활 실천운동(운동·금연·절주·영양) 등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됐다.

협의회는 전북도와 도의회·체육회·건강보험공단·대학 등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협의회는 건강증진 주요 시

책의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건강지표를 분석하게 된다.

또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추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 출범으로 도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과 건강증진 계획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도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정책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여름방학스피치 특강 모집**  
**스피치·웅변·면접·웃음치료·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 외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사
- 한국스피치센터 설립설립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컨설턴트
- 저서: '35원스피치커뮤니케이션', '너를 세운 말', '스피치노하우' 등

※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 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 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수연사 배출)  
③ 김양욱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 차광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 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